僕射公派宗會 定期總會 開催

복야공파종회 정기총회 개최

△안동 태화동 파종회관 정총에서 권계동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동권씨복야공파종회(安東權氏僕射公派宗會 : 회장. 권계동)는 4월 18일 오전 11시 안동시 태화동 파종회관에서 권헌성(權憲成), 권두갑(權斗甲), 권오수(權五秀) 고문과 전국에서 온 파족(派族)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제32차 파종회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권오익(權五翼) 총무부장의 사회로 먼저 진도(珍島) 앞바다 여객선 침몰사고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에 이어 시조 태사공 묘소 및 복야공파조 단소를 향한 망배(望拜), 상읍례(相揖禮)가 있었다.

권계동 파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세월호 침몰로 희생자가 발생하여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한며 "일기도 불순하고 농촌이 바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많은 파족(派族)이 참석해 주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어 "오늘은 친족 간의 족의(族誼)를 돈독(敦篤)히 하고 상호(相互) 친목(親睦)을 도모(圖謀)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종원(大宗院)과 파종회의 각종 경과를 설명하고 파족 모두가 권문(權門)의 모든 일에 주도적인 역할(役割)을 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파종회지(派宗會誌)' 제3호에 수록할 원고를 보내 달라는 주문과 앞으로 파종회지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발간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회장의 인사에 이어 경과보고, 감사보고가 있었고, 2013년도 결산보고와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기타토의 시간에 단소주변(壇所周邊)의 성역화와 단소 입구 안내 표지판(標識板)을 설치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에 좀 더 깊이 연구해 보기로 하였다.

회의를 마친 참석자 전원은 인근 '한아름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화기애애(和氣靄靄)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나누다가 해산하였다. 〈보도부장 權寧健〉

동정공파종회 정기총회

동정공파종회(회장 권도혁)는 지난 3월 25일 안동시 옥정동 동정공파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파족 72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오수 前사무국장의 사회로 상례행사에 이어 권도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모임이나 정기총회 시에 파족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권중우 감사의 감사보고, 권오수 前사무국장의 경과,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총무는 권중의씨를 선임하고 회의를 마치고 오찬 후 산회했다.

△동정공파종회정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권도혁 회장

〈권혁세 기자〉

友鄕稧 春享祭 奉行

우향계 춘향제 봉행

△안동성곡동 우향산에서 우향계 춘향제를 봉행하고 있다.

△우향계 춘향제를 봉행하기 위해 제관들이 도열하고 있다.

갑오년(甲午年) 4월 17일(음력 3월 18일) 안동시 성곡동 우향사(友鄕祠)에서 우향계원(友鄕稧員)이었던 5개 문중(門中)인 <안동권씨(安東權氏), 고성이씨(固城李氏), 영양남씨(英陽南氏), 흥해배씨(興海裵氏), 안강노씨(安康盧氏)> 후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향제(春享祭)를 봉행(奉行)하였다.

이날 참제(參祭) 분정(分定)은 초헌관(初獻官) 배시섭(裵時燮), 아헌관(亞獻官) 이승백(李承栢), 종헌관(終獻官) 권오수(權五秀), 축(祝) 권혁창(權赫昌), 찬자(贊者) 배중희(裵重熙)가 각각 담당하여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춘향제례(春享祭禮)를 약 2시간에 걸쳐 마치고 우향각(友鄕閣)으로 자리를 옮겨 우향각의 마루와 앞마당 잔디밭에서 음복례(飮福禮)를 하였다. 참제원(參祭員)들은 잔디밭에서 삼삼오오 나누어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으며 환담(歡談)을 나누다가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헤어졌다.

우향계 5개 문중(門中) 대표들이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우향각에 화장실과 수도시설이 전연 되어있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해결책을 건의하자 참석한 권영세 안동시장은 "연구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제례(祭禮)주관(主管)은 5개 문중(門中)이 매년 윤번제(輪番制)로 실시 해 오고 있다.

우향계(友鄕稧)는 지금으로부터 536년 전 1478년(성종 9)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선비들의 계회(稧會)로 서로에게 덕업(德業)을 권하고 친목(親睦)을 도모(圖謀)하고 풍화(風化)를 밝히기 위해 결성되었다.

세종(世宗) 때 좌의정(左議政)을 역임한 고성이씨(固城李氏)인 이원(李原)의 아들 이증(李增)이 안동에 낙향하여 안동권씨(安東權氏) 3명, 영양남씨(英陽南氏) 4명, 흥해배씨(興海裵氏) 4명, 안강노씨(安康盧氏) 1명 등 13명이 우향계(友鄕稧)를 조직하여 계첩을 하나씩 나누어 가진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 당시 어지러운 사회상(社會相)을 바로 잡고 생활의 규제를 담은 계안을 만들어 현재까지 이어 오고 있다. 당시 조정의 원로이자 문장가인 서거정(徐居正)이 장편의 7언 고시(古詩)를 지어 축하(祝賀)하기도 하였다. 〈상임부총재 권계동〉

행주서원杏洲書院(紀功祠) 춘향제

2014년4월14일 10시30분 경기 고양 덕양구 행주동 기공사에서는 관내 유림들과 행주서원 유사들이 경건하게 춘향제를 봉행하였다. 이번 춘향제에는 덕양구청장이 헌관으로 참석하였으며 예하장수 문중에서 모두 종헌관으로 봉행하였다.

임지왜란 당시 권율 장군은 아현에 진을 치려하였으나 막하장수인 선거이,조경,변이중 등의 반대로 조경장수가 물색한 곳으로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곳이 곳 행주산성이다. 권 율 장군은 조경을 시켜 해발 124미터의 덕양 산 중턱에 2중의 튼튼한 목책을 설치하고 휘하병력 가운데 사천여명을 뽑아 선거이로 하여금 금천에서 서울을 견제토록 하였고 변이중에게도 정병 1천을 거느리고 양천에 주둔 행주산성과 금천 중간위치에서 왜군을 견제토록 하는 한편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여 행주산성에 배수진을 친 권 율 장군을 돕도록 하였다.

전투준비가 끝난 1593년 2월12일 새벽 왜군 총수는 3만 명에 이르는 7개 부대를 거느리고 행주산성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그러자 권 율 장군이 이끄는 2천여 명의 정병은 화포와 수차석포, 화전의 집중적인 공격은 물론 ,왜군 제6대의 공격 때에는 재주머니를 터트려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등 백병전을 전개했다. 뿐만 아니라 고양의 부녀자들은 치마를 짧게 만들어 입고 돌을 날라 투석전을 전개 했던 것으로 행주치마의 유래가 되었다. 산성에는 1603년에 건립한 행주 대첩비가 비각 속에 남아있으며 1963년에 세운 대첩비도 서 있다. 이비의 전면 글씨는 고 박정희 대통령이 쓴 것이다. 1970년 대대적인 정화사업 하면서 권율 장군의 사당인 충장사를 다시 짓고 1845년에 세운 행주 기공사 경내의 대첩비는 충장사 옆으로 옮겼다가 원래 있던 기공사로 2011년 옮겼다.

행주서원 원장 강홍강씨는 서원 옆 동쪽 부지는 이미 매입하여 서원확장공사를 할 예정에 있으며 앞 토지와 주택도 매입하여 철거 후 홍살문을 세울 예정이라고 하였다.

헌관 집사분정은 초헌관 고양시 덕양구청장 이상영, 아헌관 고양시 의회의장 박윤희, 종헌관 고양시 시조협회장 박영경, 대축 행주서원유사 김대연, 집례 도유사 선운영

권오준 포스코회장 취임

"위대한 포스코 도전에 나서다"

△권오준 포스코회장 취임 후 포항제철소 현장순시모습(우측)

지난 2014년 3월 14일 주주 이사회는 총회를 통해 제8대 포스코회장으로 권오준(35世·검교공파) 현(現)포스코총괄 사장이 내정됐다. 재계순위 6위 대기업인 '포스코호(號)'의 새 수장(首長)에 내정된 권오준(64) 기술총괄(CTO)사장은 철강업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 할 '최고의 기술 엔지니어'이다. 1986년 포스코에 입사한 그는 26년간 포항과 광양에서 머물며 '기술연구' 한길을 팠다. 서울 생활은 CTO로 발탁된 2012년 부터였다. 17일 오전 8시 서울 대치동 포스코빌딩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그의 일성(一聲)은 "포스코를 국민의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포스코의 기술쇄신을 이끌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권범준 홍보부장〉

昌和公 派譜發刊 告由祭

창화공 파보발간 고유제

2014년 3월26일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 14世 昌和公 諱 準 墓域에서 30여명의 문중 자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보발간을 위한 고유제를 봉행했으며 경과보고를 경청하였다. 權炳善 종회장은 경과보고와 족보 발간을 권석원씨는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기록 또 교정을 반복하여 최고급 양장지로 파보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다. 고유 헌관은 초헌 병선, 아헌 태출, 종헌 영부씨가 하였다.

고려시대의 벽화가 그려진 이 묘는 도굴당한 후 신고되어 1991년 국립문화재연구에서 발굴조사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무덤 안에 벽화가 그려진 묘임이 밝혀졌다.

벽화묘의 봉분은 높이 150㎝ 지름은 420㎝이며 내부석곽은 장 방향으로 동 서 북 3면과 천장석, 문 비석은 안쪽 면을 잘 다듬은 화강암 판석이며, 길이 285㎝,너비 128㎝이다. 석곽의 동 서 북 3면의 안쪽 면과 문비 석 안쪽면에 각각 인물상이 그려져 있으며 천장석 중앙에는 성진도가 그려져 있다.

△3월 26일 창화공(휘 준)묘역에서 파보발간 고유제를 올리고 있다.

이 벽화 묘는 그동안 고려 말 조선 초에 문신인 청주한씨 한상질(韓尙質) 의 묘로 알려져 왔으나 1991년 문화재연구소의 조사 과정에서 고려 말의 권준權準(1280-1352)의 묘지석이 출토되어 법적 소송을 거쳐 결국 피장자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창화공 묘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종보 383호(2007.5.1자)참조

〈화산부원군종회장 권 정 택〉

齊簡公宗中시조묘소참배

제간공종중

제간공종중(양촌 문충공 제 3자)은 2014.3.25 권영한, 권오석씨 인솔로 후손 60 여명이 관광버스 2대로 서울과 이천에서 출발하여 오전 12시경 안동 능골에 도착하여 시조묘소를 참배하고 이어서 낭중공 단소를 참배하였다.

권영한씨가 남녀 종원들에게 시조묘소 및 태사공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권영본 이사는 낭중공 단소를 청도에서 이단한 내력을 설명하여 족친들은 추원보본의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다.

종중은 귀로에 충북 음성 생극에 있는 문충공 3대묘역을 참배하고 가족들은 화기애애한 가운데 주변 경관을 둘러보고 족의를 두터이 하면서 따뜻한 봄날 여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지난 3월 25일 제간공종중에서 시조 묘소를 참배하고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4세 권영본 추밀공파 이사〉

通德郎 根公 崇慕齋·靈慕堂 준공식

통덕랑 근공 숭모재·영모당

안동권씨 근계종회(회장 : 권보근)는 지난 19일 김포시 대곶면 대곶로 119번길 17-7에서 통덕랑 휘 근공 숭모재. 영모당 준공식 및 현판제막을 가졌다,

이날 권익현 전 민정당 대표, 권중동 전 노동부장관, 권영익 대종원 부총재, 권정택 안동권씨 기로회장, 능동춘추 권오훈 사장, 김기송 전 김포문화원장, 박용태 대곶면장, 박영준 수남초교장 등 내외 귀빈 2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권오윤씨 사회로 개식선언, 국기에 대한 경례, 시조 태사공께 망배, 내빈소개, 준공 테이프 컷팅, 경과보고, 권보근 회장 인사말과 권중동 전 노동부장관, 권영익 부총재, 권정택 기로회장의 축사이어 권오익 전 회장, 권오민 총무, 김기호 전통한옥기능보유자, 권보근 건륜건설 대표이사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과 권보근 회장에게 안동권씨 대종원 종무위원 선임장을 전달하고, 현판제막 끝으로 준공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내빈들이 숭모재 준공 테이프를 절단하고 있다.

숭모재, 영모당은 부지면적 2,295㎡에 연건평 234.7㎡(재실 115.44㎡, 숭모당 94.72㎡, 솟을삼문 24.54㎡) 공사기간 2012.5.20~2014.4.15 공사비 8억1천5백만원으로 재원은 안동권씨근계종회 종산 일부를 매각하여 조달하였다. 〈권오윤〉

花山 府院君系 諱 德養 主簿公 歲享

화산 부원군계 휘 덕양 주부공 세향

주부공종중(회장 권정택)은 2014년 4월 6일 한식일 10시 諱 德養 奉列大夫 行典牲署主簿公(25世) 이하 10여분 선조님 세향을 봉행하였다.

9시 30분 임진강 남단 통일대교에서 미리 연락하여 군부대의 인솔아래 경기도 장단군 군내면 점원리 산 33일대의 선영에서 선조님들의 한식 춘향을 봉행하게 된 것을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일일이 봉행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다.

△주부공종중에서 주부공(휘 덕양)의 세향을 봉행하고 있다.

산신제 후 선대부터 강신례, 참신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사신례, 음복례순으로 주부공은 초헌관 權曛澤, 아헌관 周澤, 종헌관 寧哲 축관 寧燮으로 하였다.

향사봉행을 마치고 총회에서 경과보고와 결산보고 후 회장의 인사로 그동안의 7년간 종중을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아무것도 한 일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시대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것이 과거에는 수장의 말 한마디가 법이다 할 만큼 엄하게 지내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며 회장임무를 마치고 뒤돌아보니 그래도 질서있게 고유의 선조님들의 유혼을 지켰 왔다고 생각이 되어 고맙다고 하였다.

후임회장은 권경택씨가 추대되어 인사를 하였다. 연회는 종가 댁에서 마련한 산채 비빔밥을 제공하고 제물을 나누어 즐겁게 식사와 곡주를 즐기었다.

(권정택회장)

贈領議政行禮曹判書吉昌府院君諱悏

증 영의정 행 예조판서 길창부원군 휘 협

선조는 6월23일 어렵게 의주에 도착하여 의주 목사의 아사(衙舍)인 용만관을 행궁으로 삼았다. 의주 용만관 행궁에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권력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났다. 선조의 시선이 이항복을 향했다. 행궁으로 자리 잡은 의주는 해마다 흉년이 들어 촌락은 쓸쓸하고 관청의 창고는 텅 비어 있었다.

"권협을 들게 하라" 선조는 용만관 행궁에서 승지에게 영을 내렸다. 선조에게 명을 받은 승지는 권협에게 이르기를 "전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권협은 갑자기 임금이 찾는다는 승지의 말을 듣고 마음을 조아리며 급히 빠른 걸음으로 행궁으로 들어왔는데 행궁으로 들어오는 권협을 보고 의아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몇몇 대신이 있었다.

"전하 찾으셨습니까?"

"곧 명나라 군사가 입국한다 하니 긴급한 것은 군량과 말먹이다. 그대를 관서 운량어사로 삼노니 명나라 군사의 군량과 말먹이가 급하여 삼현의 곡식을 정주 안주 등으로 선운하도록 하여야겠다. 경서 3도의 군량조달을 총독하여 명나라 군사에세 공급할 군량과 말먹이를 책임지고 운송하라" 권협이 행재소에 들어와 어명을 받은 것은 사시 경이었으니 선조의 심중을 깊이 헤아릴 것 같았다. 대가가 이곳에 온지도 벌써 여러 날이 되었는데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져서 사대부가 군부(君父)의 위급을 구하려는 뜻이 없었다.

1592년(선조 25년) 12월24일 명(明)나라 도독(都督) 이여송이 구원병과 후속부대까지 합쳐 5만 명이 용맹스러운 장수 50여 명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왔다. 명나라 구원병이 압록강을 건너자 군량미와 화약이 속속 실려 왔다. 이여송이 안주에 이르렀을 때 도체찰사의 자격으로 유성룡이 권협을 대동하고 그를 맞아들였다. 유성룡은 평양의 지형과 군대가 공격할 수 있는 위치를 자세히 설명토록 권협에게 지시하자 권협은 이여송에게 평양의 위치와 지형을 설명하니 이여송은 고개를 끄덕이며 승리를 장담했다.

권협은 평양에 주둔한 왜적과 싸울 때 임금의 명을 받아 삼도(三道)의 군량(軍糧)과 마초(馬草)를 독촉하여 명나라 군사에게 공급하여 병사가 포식하고 말이 날뛰니 평론하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여겼다.

1596년(선조 29년)에 권협을 삼남도체찰사부(三南都體察使府) 종사관(從事官)으로 중책을 맡기고 군무를 전관하도록 하고 영남과 호남의 군대를 위유하라는 명을 내렸다. 권협은 선조의 명을 받고 영남을 향해 출발했다. 〈후손 권진택〉

〈다음호에 계속〉